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2026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4(1)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 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아.

- (1)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을 구분하는 문제
- (2) 과거, 현재, 미래를 실현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
- (3)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과 피동 표현의 효과를 묻는 문제
- (4) 인용 표현을 만드는 방법과 인용 표현의 효과를 묻는 문제
- (5) 전문어와 사고 도구어를 구분하는 문제



높임 표현에는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부사어와 목적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 표현이 있지요?

딩동댕~ 주체 높임 표현은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이고,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며 ‘계시다,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실현하지. 객체 높임 표현은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고 ‘모시다, 여쭙다, 드리다, 뵈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표현한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구분해서 알아 둬야 해. 상대 높임 표현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는 건 알지? 하십시오체, 하오체 등 그 세부 내용도 꼭 확인하렴.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것이 과거,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면 현재,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면 미래예요. 그리고 시제는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어요.

남돌이는 문법 박사구나ㅎㅎ 그렇다면 피동 표현도 확인해 볼까? 피동 표현이란,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아지다/-어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실현하며, 일부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만들 수 있지. 행위의 주체보다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되지.





인용 표현도 알려 주세요!

인용 표현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 것은 알지?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인용된 문장에 **큰따옴표**와 조사 '라고'를 사용해.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것으로, 인용된 문장에 **조사 '고'**를 사용하지. 인용을 통해 말과 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단다.



네~ 그리고 전문어는 알겠는데, 사고 도구어는 대체 무엇 인가요?

**사고 도구어**는 학문 분야에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란다. 예를 들어 볼게. '서까래, 도리, 종도리' 이런 용어는 전혀 모르겠지? 이렇게 **특정 학문이나 직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전문어**야. '구분하다, 형성되다'와 같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 사고 도구어고. 마지막으로 전문어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니 문법도 쉽네요!

AI 직전 보강 확인



선생님,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나요?

이번 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아.

- (1)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을 구분하는 문제
- (2) 과거, 현재, 미래를 실현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
- (3)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과 피동 표현의 효과를 묻는 문제
- (4) 인용 표현을 만드는 방법과 인용 표현의 효과를 묻는 문제
- (5) 전문어와 사고 도구어를 구분하는 문제



높임 표현에는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부사어와 목적어를 높이는 \_\_\_\_\_ 높임, \_\_\_\_\_를 높이거나 \_\_\_\_\_는 상대 높임 표현이 있지요?

딩동대~ 주체 높임 표현은 선어말 어미 '-\_\_\_\_-'를 붙이고,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며 '\_\_\_\_,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실현하지. \_\_\_\_\_ 높임 표현은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고 '모시다, 여쭙다, 드리다, \_\_\_\_\_'와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표현한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을 구분해서 알아 줘야 해. 상대 높임 표현에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는 건 알지? 하십시오체, 하오체 등 그 세부 내용도 꼭 확인하렴.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것이 \_\_\_\_\_,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면 \_\_\_\_\_,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이면 \_\_\_\_\_에요. 그리고 시제는 \_\_\_\_\_어미, \_\_\_\_\_어미, 시간 부사 등을 통해 표현할 수 있어요.

남들이는 문법 박사구나ㅎㅎ 그렇다면 피동 표현도 확인해 볼까? 피동 표현이란,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_\_-', '-\_\_-', '-리-', '-기-'를 붙이거나, '-아지다/-어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실현하며, 일부 명사 뒤에 접사 '-\_\_\_\_'를 결합하여 만들 수 있지. 행위의 주체보다는 \_\_\_\_\_을 강조하고 싶을 때,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되지.



인용 표현도 알려 주세요!

인용 표현에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 것은 알지?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것으로, 인용된 문장에 **큰따옴표**와 조사 ‘\_\_\_’를 사용해. **간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것으로, 인용된 문장에 **조사 ‘\_\_\_’**를 사용하지. 인용을 통해 말과 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단다.



네~ 그리고 전문어는 알겠는데, 사고 도구어는 대체 무엇 인가요?

**사고 도구어**는 학문 분야에서 사고 및 논리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란다. 예를 들어 볼게. ‘서까래, 도리, 종도리’ 이런 용어는 전혀 모르겠지? 이렇게 **특정 학문이나 \_\_\_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전문어**야. ‘구분하다, 형성되다’와 같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이 사고 도구어고.

마지막으로 전문어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_\_\_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니 문법도 쉽네요!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2026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4(1)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 설명은 주석 교과서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며, 빨간색 설명은 내신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문 분석

활동 1. 문법 요소와 그 표현 효과 이해하기

❶ **높임 표현**(주체 높임 표현과 객체 높임 표현이 모두 사용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문장을 제시하고 각 문장에서 높이고 있는 대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발견 다음 밑줄 친 표현이 높이거나 낮추는 대상이 누구인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소개하신'과 '여쭙어보려'는 선생님을 높이는 표현이고, '갈래'와 '좋아'는 친구끼리 서로를 낮추는 표현이다. '소개하신'에는 주체 높임 표현, '여쭙어보려'에는 객체 높임 표현, '갈래'와 '좋아'에는 상대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해당 그림을 제시하고 밑줄 친 표현에 사용된 높임 표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자가 어떤 대상 또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표현을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높임 표현의 개념이 선지로 구성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높임 표현은 상대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낮추는 정도도 포함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높임 표현의 종류)이 있다. 생활 속 발견에서 학생들은 문장의 주체와 객체, 대화를 나누는 상대에 따라 높임의 정도를 선택하였다.

**주체 높임 표현**(<보기>를 제시하고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주체 높임 표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높이고 있고, 어떤 방식을 통해 주체 높임을 실현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체 높임 표현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으로, **서술의 주체가 화자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사용한다.**(주체 높임을 사용하는 상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체 높임 표현은 일반적으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붙이고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실현한다. '계시다',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잡수다, 드시다 등)를 사용하기도 한다.

- 할아버지**께서**(주격 조사 '이/가'의 높임말) 책을 읽으**신**(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 어머니**께서**(주격 조사 '이/가'의 높임말)는 방에서 **주무신다**.(특수 어휘)

(문장을 제시하고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표현을 모두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객체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모시다’, ‘여쭙다’, ‘드리다’, ‘뵈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실현**(‘여쭙다’와 ‘뵈다’도 ‘여쭙다’, ‘뵈다’와 마찬가지로, ‘묻다’, ‘보다’의 높임말임. ‘여쭙다’와 ‘여쭙다’는 복수 표준어이고, ‘뵈다’는 ‘뵈다’보다 더 겸양의 뜻을 나타냄.)하고,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한다.

- 우리는 선생님**께**(부사격 조사 ‘에게’의 높임말) 질문을 **드렸다**.(특수 어휘)
-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특수 어휘) 식당에 갔다.

**상대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으로, **종결 표현**(대체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나, ‘해요체’의 경우 ‘요’가 보조사이므로 ‘종결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써서 실현한다. **상대 높임 표현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다.**(‘상대 높임 표현은 다른 높임 표현과 달리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 적절한 설명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격식체는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출 때나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비격식체는 청자와 가깝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상대 높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가십시오	해요체	가요
하오체	가오		가
하게체	가게	해체	가
해라체	가라		

(해당 표에 빈칸을 뚫고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 높임 표현이 사용된 문장을 제시하고, 높임의 단계가 가장 낮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

다음 밑줄 친 대상을 괄호 안의 대상으로 바꾼 뒤, 높임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장을 다시 써 보자.

(1)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잡수시고 계신다. (동생)  
 → (청자는 동일함.) 동생은 밥을 먹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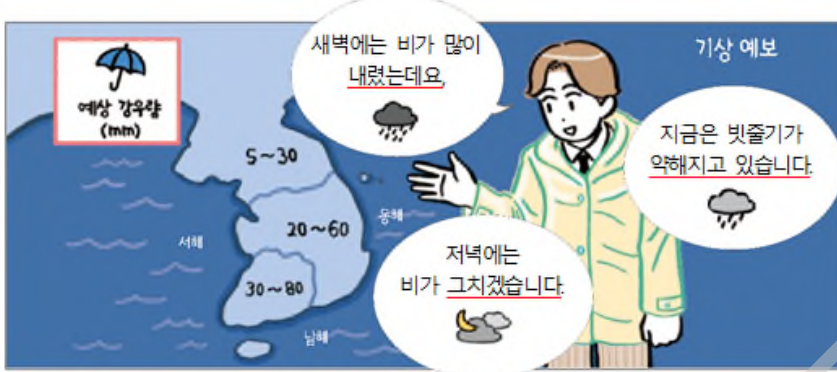
(2) 어제 선생님을 뵈러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  
 → (청자는 동일함.) 어제 친구를 보러(만나러) 학교에 갔습니다.

(3) 승준아, 함께 산책하러 나가자. (어머니)  
 → 어머니, 함께 산책하러 나가시지요.

(높임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을 제시하고, 대상을 바꾸어 높임 표현에 맞게 문장을 다시 쓰는 것이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2 시간 표현

**생활 속 발견**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시간 표현의 표현 효과를 말해 보자.



(예시 답안: ‘내렸는데요’에서는 ‘-었-’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약해지고 있습니다’에서는 ‘-고 있-’을 사용하여 진행상을, ‘그치겠습니다’에서는 ‘-겠-’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의 시제를 발화시와 사건시로 나타낼 때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간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으로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생활 속 발견에서 밑줄 친 부분에는 시간 표현 ‘-었-’(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고 있-’(진행상을 실현하는 표현), ‘-겠-’(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이 사용되어 비가 오는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에 진행되는 일인지,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를 표시한다.

**시제**(문장을 제시하고, 문장과 시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제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서 과거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가 있다. 시제는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 등을 활용하여 실현할 수 있다.

구분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
과거 시제	-았-/-었-, -더-, -았었-/-었었-	• 동사: <u>-(으)ㄴ</u> , <u>-던</u> (‘-(으)ㄴ’은 완료된 행위를 표현할 때 주로 쓰이고, ‘-던’은 미완료된 행위를 표현할 때 주로 쓰임.) • 형용사, 서술격 조사: -던	어제, 아까 등
현재 시제	• 동사: -는-/-ㄴ- • 형용사, 서술격 조사: 없음.	• 동사: -는 • 형용사, 서술격 조사: <u>-(으)ㄴ</u>	오늘, 지금 등
미래 시제	-겠-, <u>-(으)리-</u>	<u>-(으)ㄹ</u>	내일, 곧 등

(여러 문장을 제시하고, 서술어에 어떤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 표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담화의 느낌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어말 어미 ‘-았었-/-었었-’을 사용하면 발화시보다 훨씬 전에 발생한 사건이면서 현재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표현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선어말 어미 ‘-더-’의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겠-’의 경우에는 화자의 추측이나 의지 등을 드러낼 수 있다.

- **멀고 먼 과거**(과거임을 알게 하는 부사구)에는 공룡이 **살았**었다( :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다.
- 아침에 까치가 울더니,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다.
- [ 지금쯤 제주도에 도착**했**겠다( :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다.(추측) / 내일까지 일을 꼭 끝내 겠습니다.(의지) ]([ : 두 문장을 제시하고, ‘같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동일한 표현 효과가 나타난다.’가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라도 문맥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이해해야 합니다.)

**동작상**(여러 문장을 제시하고, 문장에서 드러나는 동작상이 혼자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진행상을 사용하면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완료상을 사용하면 어떤 동작이 끝났거나 끝난 뒤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진행상은 ‘-고 있다’, ‘-어(아) 오다’ 등의 표현으로 실현되고, 완료상은 ‘-어(아) 있다’, ‘-어(아) 버리다’ 등의 표현으로 실현된다.

- 날이 **밝아** 온다.(진행상)
-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완료상)

**확인**

다음 장면에서 시간 표현을 찾고, 그 표현 효과를 설명해 보자.



(예시 답안: 10분 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함. / -겠-: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함. / 최근에: 가까운 과거를 나타냄. / -ㄴ: 영화를 보는 행위가 과거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냄. / 예전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함. / -았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기능을 함. / 요즘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함. / -ㄹ: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함.)

**3 피동 표현**(피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문장 성분의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발견**

다음 두 문장의 표현 효과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제가 액자를 깬어요.'는 주어 '제가' 제힘으로 '액자를' '깬다'는 능동 표현으로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효과를 준다, '액자가 깨졌어요.'는 주어 '액자가' 다른 힘에 의하여 '깨졌다'는 피동 표현으로 책임이 자기에게 없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주어가 제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생활 속 발견에서처럼 동일한 사건이라도 능동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고,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가 명시적이지 않을 수 있음.) 피동 표현은 [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파생적 피동①), '-아지다/-어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통사적 피동: 연결 어미 '-아/-어'+보조 동사 '지다') 실현하고, 일부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파생적 피동②) 만들 수 있다. ]([ ]: 여러 문장을 제시하고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에 따라 나눈 것과, 그 유형이 각각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다친 학생이 친구에게 **엎혔다.**(엎- + -히- + -다)
- 체험 학습이 다음 주로 **미루어졌다.**(미루- + -어지다)
-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강조된다.**(강조+ -되다)

(해당 문장을 제시하고, 서술어의 형태소를 분석하는 것과 피동 표현의 실현 조건을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을 가한 주체보다는 동작을 입은 대상이 강조된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거나 행위의 주체보다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화자의 의도)

**확인**

다음 문장을 피동문으로 바꾸어 보고,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자.

소방관들이 초기에 산불을 잡았다.

(예시 답안: 피동문: 산불이 소방관들에 의해 초기에 잡혔다.

표현 효과: 동작을 가한 주체보다는 동작을 입은 대상이 강조되는 표현 효과가 있다.)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2026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4(1)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활동 1. 문법 요소와 그 표현 효과 이해하기

❶ **높임 표현**(주체 높임 표현과 객체 높임 표현이 모두 사용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문장을 제시하고 각 문장에서 높이고 있는 대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발견 다음 밑줄 친 표현이 높이거나 낮추는 대상이 누구인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소개하신'과 '여쭙어보러'는 \_\_\_\_\_ 을 높이는 표현이고, '갈래'와 '좋아'는 친구끼리 서로를 \_\_\_\_\_ 표현이다. '소개하신'에는 \_\_\_\_\_ 높임 표현, '여쭙어보러'에는 \_\_\_\_\_ 높임 표현, '갈래'와 '좋아'에는 \_\_\_\_\_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해당 그림을 제시하고 밑줄 친 표현에 사용된 높임 표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자가 어떤 대상 또는 상대를 \_\_\_\_\_ 는 표현을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높임 표현의 개념이 선지로 구성되어 출제될 수 있습니다. 높임 표현은 상대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낮추는 정도도 포함함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 표현**, \_\_\_\_\_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높임 표현의 종류)이 있다. 생활 속 발견에서 학생들은 문장의 주체와 객체, 대화를 나누는 상대에 따라 높임의 정도를 선택하였다.

**주체 높임 표현**(<보기>)를 제시하고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주체 높임 표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높이고 있고, 어떤 방식을 통해 주체 높임을 실현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체 높임 표현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으로, **서술의 주체가 화자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사용한다.**(주체 높임을 사용하는 상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체 높임 표현은 일반적으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 \_\_\_\_\_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붙이고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실현한다. '계시다',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_\_\_\_\_, \_\_\_\_\_ 등)를 사용하기도 한다.

- 할아버지 \_\_\_\_\_ (주격 조사 '이/가'의 높임말) 책을 읽으**신**(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다**.
- 어머니 \_\_\_\_\_ (주격 조사 '이/가'의 높임말)는 방에서 **주무신다**.(특수 어휘)

(문장을 제시하고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표현을 모두 쓰라는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객체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은 \_\_\_\_\_나 \_\_\_\_\_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_\_\_\_\_’, ‘여쭙다’, ‘드리다’, ‘\_\_\_\_\_’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실현(‘여쭙다’와 ‘뵈다’도 ‘여쭙다’, ‘뵈다’와 마찬가지로, ‘묻다’, ‘보다’의 높임말임. ‘여쭙다’와 ‘여쭙다’는 복수 표준어이고, ‘뵈다’는 ‘뵈다’보다 더 겸양의 뜻을 나타냄.)하고,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한다.

- 우리는 선생님\_(부사격 조사 ‘에게’의 높임말) 질문을 \_\_\_\_\_(특수 어휘)
- 나는 할머니를 \_\_\_\_\_(특수 어휘) 식당에 갔다.

상대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으로, **종결 표현**(대체로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나, ‘해요체’의 경우 ‘요’가 보조사이므로 ‘종결 표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써서 실현한다. **상대 높임 표현은 격식체와 \_\_\_\_\_로 나눌 수 있다.**(‘상대 높임 표현은 다른 높임 표현과 달리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가 적절한 설명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격식체는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출 때나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비격식체는 청자와 가깝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상대 높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격식체		비격식체	
_____	가십시오	_____	가요
하오체	가오		가
하계체	가게	해체	가
_____	가라		

(해당 표에 빈칸을 뚫고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 높임 표현이 사용된 문장을 제시하고, 높임의 단계가 가장 낮은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확인**

다음 밑줄 친 대상을 괄호 안의 대상으로 바꾼 뒤, 높임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장을 다시 써 보자.

(1)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잡수시고 계신다. (동생)  
 → (청자는 동일함.)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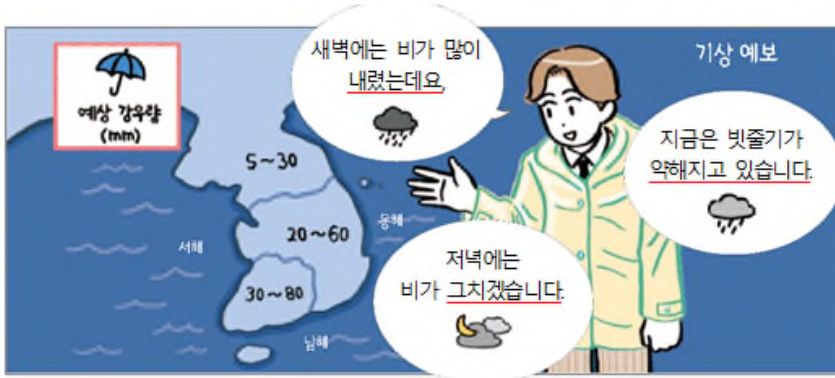
(2) 어제 선생님을 뵈러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  
 → (청자는 동일함.) \_\_\_\_\_

(3) 승준아, 함께 산책하러 나가자. (어머니)  
 → \_\_\_\_\_

(높임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문장을 제시하고, 대상을 바꾸어 높임 표현에 맞게 문장을 다시 쓰는 것이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2 시간 표현

**생활 속 발견**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시간 표현의 표현 효과를 말해 보자.



(예시 답안: ‘내렸는데요’에서는 ‘-\_\_-’을 사용하여 과거 시제를, ‘약해지고 있습니다’에서는 ‘-\_\_-’을 사용하여 진행상을, ‘그치겠습니다’에서는 ‘-\_\_-’을 사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의 시제를 발화시와 사건시로 나타낼 때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간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으로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생활 속 발견에서 밑줄 친 부분에는 시간 표현 ‘-\_\_-(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_\_-(진행상을 실현하는 표현)’, ‘-\_\_-(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이 사용되어 비가 오는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에 진행되는 일인지,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를 표시한다.

**시제**(문장을 제시하고, 문장과 시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제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가 있다. 시제는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 등을 활용하여 실현할 수 있다.

구분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
과거 시제	-았-/-었-, -더-, -__-/-__-	• 동사: <b>-(으)ㄴ, -던</b> (‘-(으)ㄴ’은 __ __된 행위를 표현할 때 주로 쓰이고, ‘- 던’은 _____된 행위를 표현할 때 주로 쓰임.) • 형용사, 서술격 조사: -던	어제, 아까 등
현재 시제	• 동사: <b>-__-/-ㄴ-</b> • 형용사, 서술격 조사: 없음.	• 동사: <b>-는</b> • 형용사, 서술격 조사: <b>-(으)ㄴ</b>	오늘, 지금 등
미래 시제	-겠-, <b>-(으)리-</b>	<b>-(으)ㄹ</b>	__, 곧 등

(여러 문장을 제시하고, 서술어에 어떤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시제를 표현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 표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담화의 느낌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어말 어미 ‘-았았-/-았었-’을 사용하면 발화시보다 훨씬 전에 발생한 사건이면서 현재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표현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선어말 어미 ‘-더-’의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겠-’의 경우에는 화자의 \_\_이나 \_\_ 등을 드러낼 수 있다.

- **멀고 먼 과거**(과거임을 알게 하는 부사구)에는 공룡이 **살았**었( :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다.
- 아침에 까치가 울더니,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다.
- [ **지금쯤 제주도에 도착**했겠( :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다.( ) / **내일까지 일을 꼭 끝**내겠습니  
다.( ) ] ([ ] : 두 문장을 제시하고, '같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어 동일한 표현 효과가 나타난다.'가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같은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라도 문맥에 따라 그 효과가 다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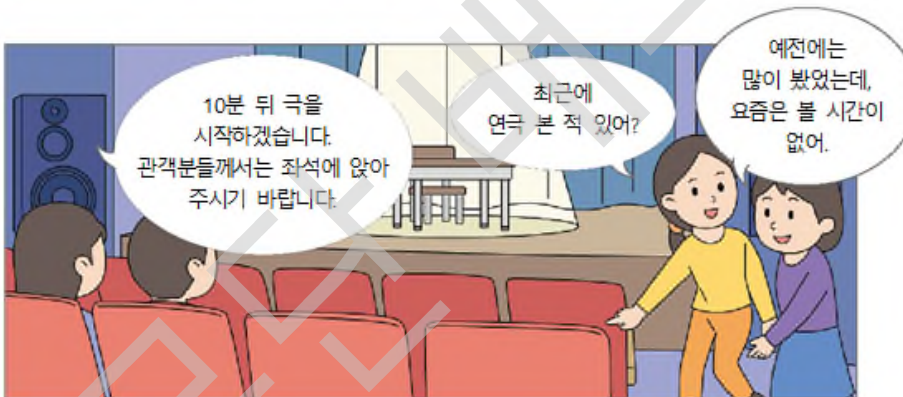
**동작상**(여러 문장을 제시하고, 문장에서 드러나는 동작상이 혼자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진행상을 사용하면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  
음을 표현할 수 있고, 완료상을 사용하면 어떤 동작이 끝났거나 끝난 뒤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진행상은 '-고 있다', '-어(아) 오다' 등의 표현으로 실현되고, 완료상은 '-어(아) 있다', '-어(아) 버리  
다' 등의 표현으로 실현된다.

- 날이 **밝아** 온다.( )
-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 )

**확인**

다음 장면에서 시간 표현을 찾고, 그 표현 효과를 설명해 보자.



(예시 답안: 10분 뒤: \_\_\_\_\_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함. / -겠-: \_\_\_\_\_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함. / 최근에: 가까운 \_\_\_\_\_ 를 나  
타냄. / -ㄴ: 영화를 보는 행위가 \_\_\_\_\_ 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냄. / 예전에는: \_\_\_\_\_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함. / -았-: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_\_\_\_\_ 된 느낌을 주는 기능을 함. / 요즘은: \_\_\_\_\_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함. / -ㄹ: \_\_\_\_\_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함.)

**3 피동 표현**(피동 표현을 사용했을 때의 문장 성분의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발견**

다음 두 문장의 표현 효과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말해 보자.



(예시 답안: '제가 액자를 깬어요.'는 주어 '제가' 제힘으로 '액자를' '깬다'는 능동 표현으로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효과를 준다, '액자가 깨졌어요.'는 주어 '액자가' 다른 힘에 의하여 '깨졌다'는 피동 표현으로 \_\_\_\_\_이 자기에게 없다는 의도를 드러낸다.)

주어가 제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생활 속 발견에서처럼 동일한 사건이라도 능동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고,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행위의 주체가 명시적이지 않을 수 있음.) 피동 표현은 [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_\_\_\_\_ 피동①), '-아지다/-어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_\_\_\_\_ 피동: 연결 어미 '-아/-어'+보조 동사 '지다') 실현하고, 일부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_\_\_\_\_ 피동②) 만들 수 있다. ]([ ]: 여러 문장을 제시하고 피동 표현의 실현 방법에 따라 나눈 것과, 그 유형이 각각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다친 학생이 친구에게 **업혔다.**(업- + - - + -다)
- 체험 학습이 다음 주로 **미루어졌다.**(미루- + - - )
-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강조된다.**(강조+ - )

(해당 문장을 제시하고, 서술어의 형태소를 분석하는 것과 피동 표현의 실현 조건을 묻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을 가한 주체보다는 동작을 입은 대상이 강조된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거나 행위의 주체보다는 \_\_\_\_\_을 \_\_\_\_\_하고 싶은 경우에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피동 표현을 사용하는 화자의 의도)

**확인**

다음 문장을 피동문으로 바꾸어 보고,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자.

소방관들이 초기에 산불을 잡았다.

(예시 답안: 피동문: 산불이 소방관들에 의해 초기에 잡혔다.

표현 효과: 동작을 가한 주체보다는 동작을 입은 대상이 강조되는 표현 효과가 있다.)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2026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4(1)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높임 표현

주체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어</b>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li> <li>•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이고, 주격 조사 ‘<b>께서</b>’를 사용하며, ‘<b>계시다</b>’,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함.</li> </ul>	
객체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어나 <b>부사어</b>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li> <li>• ‘모시다’, ‘<b>어쭙다</b>’, ‘드리다’, ‘뵈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부사격 조사 ‘<b>께</b>’를 사용하기도 함.</li> </ul>	
상대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가 <b>칭제</b>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li> <li>• <b>종결</b> 표현을 써서 실현함.</li> </ul>	
<b>격식체</b>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출 때나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함.
<b>비격식체</b>	청자와 가깝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함.

2.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특수 어휘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다 → 계시다</li> <li>• <b>죽다</b> → 돌아가(시)다</li> <li>• 주다 → <b>드리다</b></li> <li>• <b>토다</b> → 뵈다/뵈다</li> <li>• 데리다 → <b>모시다</b></li> </ul>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밥 → <b>진지</b></li> <li>• 이 → <b>치아</b></li> <li>• 나이 → 연세, <b>춘추</b></li> <li>• 이름 → 성함, <b>함자</b></li> <li>• 집 → <b>택</b></li> <li>• 말 → <b>말씀</b></li> <li>• 병 → <b>병환</b></li> <li>• 생일 → <b>생신</b></li> </ul>

3. 피동 표현

피동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가 <b>다른</b>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능동: 주어가 <b>제힘</b>으로 움직이는 것)</li> <li>•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아지다/’-어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실현하며, 일부 명사 뒤에 <b>접사</b> ‘-되다’를 결합하여 만들 수 있음.</li> </ul>

TEST 1단계

1. 높임 표현

주체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li> <li>•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를 붙이고, 주격 조사 ‘□서’를 사용하며, ‘계□다’,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함.</li> </ul>	
객체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어나 부□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li> <li>• ‘모시다’, ‘여□다’, ‘드리다’, ‘뵈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기도 함.</li> </ul>	
상대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가 □자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li> <li>• 종□ 표현을 써서 실현함.</li> </ul>	
□식체	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출 때나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함.
□□식체	칭자와 가깝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함.

2.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특수 어휘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다 → 계시다</li> <li>• □다 → 돌아가(시)다</li> <li>• 주다 → □□다</li> <li>• □다 → 뵈다/뵈다</li> <li>• 데리다 → □□다</li> </ul>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밥 → 진□</li> <li>• 이 → 치□</li> <li>• 나이 → 연세, 춘□</li> <li>• 이름 → 성함, 함□</li> <li>• 집 → □</li> <li>• 말 → 말□</li> <li>• 병 → 병□</li> <li>• 생일 → 생□</li> </ul>

3. 피동 표현

피동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가 다□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능동: 주어가 □힘으로 움직이는 것)</li> <li>•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이-’, ‘-□-’, ‘-리-’, ‘-□-’를 붙이거나, ‘-□□다/-□□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실현하며, 일부 명사 뒤에 □사 ‘-되다’를 결합하여 만들 수 있음.</li> </ul>	



TEST 2단계

1. 높임 표현

주체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ㄷ] [ㅇ]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li> <li>•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ㅅ]’를 붙이고, 주격 조사 ‘[ㄱ] [ㅅ]’를 사용하며, ‘[ㄱ] [ㅅ] [ㄷ]’,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함.</li> </ul>	
객체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어나 [ㅂ] [ㅅ] [ㅇ]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li> <li>• ‘모시다’, ‘[ㅇ] [ㅈ] [ㄷ]’, ‘드리다’, ‘뵈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기도 함.</li> </ul>	
상대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가 [ㅈ] [ㅈ]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li> <li>• [ㅈ] [ㄱ] 표현을 써서 실현함.</li> </ul>	
[ㄱ] [ㅅ]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출 때나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함.
[ㅂ] [ㄱ]	청자와 가깝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함.
[ㅅ] [ㅈ]	

2.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특수 어휘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다 → 계시다</li> <li>• [ㅈ] [ㄷ] → 돌아가(시)다</li> <li>• 주다 → [ㄷ] [ㄹ] [ㄷ]</li> <li>• [ㅂ] [ㄷ] → 뵈다/뵙다</li> <li>• 데리다 → [ㅁ] [ㅅ] [ㄷ]</li> </ul>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밥 → [ㅈ] [ㅈ]</li> <li>• 이 → [ㅈ] [ㅇ]</li> <li>• 나이 → 연세, [ㅈ] [ㅈ]</li> <li>• 이름 → 성함, [ㅎ] [ㅈ]</li> <li>• 집 → [ㄷ]</li> <li>• 말 → [ㅁ] [ㅅ]</li> <li>• 병 → [ㅂ] [ㅎ]</li> <li>• 생일 → [ㅅ] [ㅅ]</li> </ul>

3. 피동 표현

피동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가 [ㄷ] [ㄹ]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능동: 주어가 [ㅈ] [ㅎ]으로 움직이는 것)</li> <li>•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이-’, ‘-[ㅎ]’, ‘-리-’, ‘-[ㄱ]’를 붙이거나, ‘-[ㅇ] [ㅈ] [ㄷ]’/‘[ㅇ] [ㅈ] [ㄷ]’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실현하며, 일부 명사 뒤에 [ㅈ] [ㅅ] ‘-되다’를 결합하여 만들 수 있음.</li> </ul>	

TEST 3단계

1. 높임 표현

주체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li> <li>•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를 붙이고, 주격 조사 ‘□□’를 사용하며, ‘□□□’,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함.</li> </ul>	
객체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어나 □□□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li> <li>• ‘모시다’, ‘□□□’, ‘드리다’, ‘뵈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기도 함.</li> </ul>	
상대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가 □□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li> <li>• □□ 표현을 써서 실현함.</li> </ul>	
□□□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출 때나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함.
□□□□	청자와 가깝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함.

2.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특수 어휘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다 → 계시다</li> <li>• □□ → 돌아가(시)다</li> <li>• 주다 → □□□</li> <li>• □□ → 뵈다/뵙다</li> <li>• 데리다 → □□□</li> </ul>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밥 → □□</li> <li>• 이 → □□</li> <li>• 나이 → 연세, □□</li> <li>• 이름 → 성함, □□</li> <li>• 집 → □</li> <li>• 말 → □□</li> <li>• 병 → □□</li> <li>• 생일 → □□</li> </ul>

3. 피동 표현

피동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가 □□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능동: 주어가 □□으로 움직이는 것)</li> <li>•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이-’, ‘-□-’, ‘-리-’, ‘-□-’를 붙이거나,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실현하며, 일부 명사 뒤에 □□ ‘-되다’를 결합하여 만들 수 있음.</li> </ul>	

TEST 4단계

1. 높임 표현

주체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____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li> <li>•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__-’를 붙이고, 주격 조사 ‘____’를 사용하며, ‘____’,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함.</li> </ul>	
객체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어나 ____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li> <li>• ‘모시다’, ‘____’, ‘드리다’, ‘뵈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부사격 조사 ‘께’를 사용하기도 함.</li> </ul>	
상대 높임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자가 ____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li> <li>• ____ 표현을 써서 실현함.</li> </ul>	
_____	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출 때나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함.
_____	칭자와 가깝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함.

2. 높임 표현을 실현하는 특수 어휘

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다 → 계시다</li> <li>• ____ → 돌아가(시)다</li> <li>• 주다 → _____</li> <li>• ____ → 뵈다/뵙다</li> <li>• 데리다 → _____</li> </ul>
명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밥 → _____</li> <li>• 이 → _____</li> <li>• 나이 → 연세, _____</li> <li>• 이름 → 성함, _____</li> <li>• 집 → _____</li> <li>• 말 → _____</li> <li>• 병 → _____</li> <li>• 생일 → _____</li> </ul>

3. 피동 표현

피동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어가 ____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 (능동: 주어가 ____으로 움직이는 것)</li> <li>•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이-’, ‘-__-’, ‘-리-’, ‘-__-’를 붙이거나, ‘-____/____-’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실현하며, 일부 명사 뒤에 ____ ‘-되다’를 결합하여 만들 수 있음.</li> </ul>	

O / X 문제

【1~10】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높임 표현에는 총 네 가지가 있다. …… (O / X)

2. 주체 높임 표현에서는 주격 조사 ‘께’를 사용한다. …… (O / X)

3. 상대 높임 표현은 종결 표현을 써서 실현한다. …… (O / X)

4. ‘뵤다’는 주체 높임 특수 어휘에 해당한다. …… (O / X)

5.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것은 과거 시제이다. …… (O / X)

6. 어떤 동작이 끝났거나 끝난 뒤의 결과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완료상’이라고 한다. …… (O / X)

7.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는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다. …… (O / X)

8. ‘준기가 나한테 자기랑 놀러 가자고 말했다.’는 간접 인용이다. …… (O / X)

9. ‘-았었-’은 과거와 현재가 단절된 느낌을 준다. …… (O / X)

10. ‘분자’, ‘공유 결합’은 사고 도구어에 해당한다. …… (O / X)

1. X 2. X 3. O 4. X 5. X 6. O 7. O 8. O 9. O 10. X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2026 고1 공통국어1 천재(김수학)  
4(1)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복습 필기용 지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지문

활동 1. 문법 요소와 그 표현 효과 이해하기

1 높임 표현

생활 속 발견 다음 밑줄 친 표현이 높이거나 낮추는 대상이 누구인지 말해 보자.



화자가 어떤 대상 또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하는 표현을 높임 표현이라고 한다.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이 있다. 생활 속 발견에서 학생들은 문장의 주체와 객체, 대화를 나누는 상대에 따라 높임의 정도를 선택하였다.

주체 높임 표현

주체 높임 표현은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표현으로, 서술의 주체가 화자보다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을 때 사용한다. 주체 높임 표현은 일반적으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이고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실현한다. '계시다', '주무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기도 한다.

-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 어머니께서는 방에서 주무신다.

### 객체 높임 표현

객체 높임 표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모시다’, ‘여쭙다’, ‘드리다’, ‘뵈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실현하고,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한다.

- 우리는 선생님께 질문을 드렸다.
-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식당에 갔다.

### 상대 높임 표현

상대 높임 표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으로, 종결 표현을 써서 실현한다. 상대 높임 표현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다. 격식체는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출 때나 공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비격식체는 청자와 가깝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상대 높임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가십시오	해요체	가요
하오체	가오		
하게체	가게	해체	가
해라체	가라		

#### 확인

다음 밑줄 친 대상을 괄호 안의 대상으로 바꾼 뒤, 높임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문장을 다시 써 보자.

(1) 할아버지께서는 진지를 잡수시고 계신다. (동생)

→ (청자는 동일함.) \_\_\_\_\_

(2) 어제 선생님을 뵈러 학교에 갔습니다.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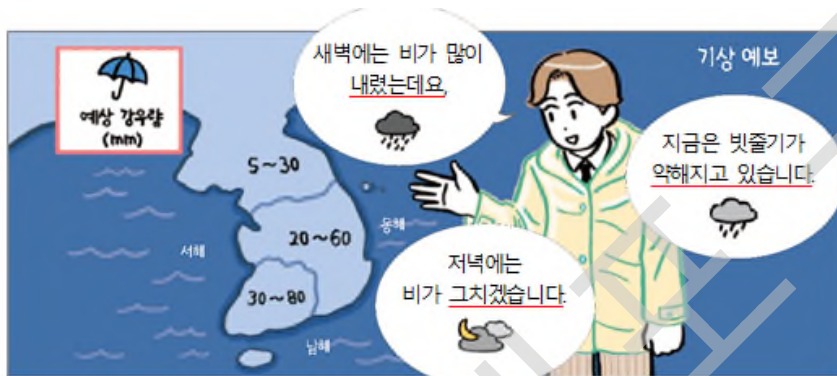
→ (청자는 동일함.) \_\_\_\_\_

(3) 승준아, 함께 산책하러 나가자. (어머니)

→ \_\_\_\_\_

## 2 시간 표현

**생활 속 발견**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사용된 시간 표현의 표현 효과를 말해 보자.



시간 표현은 시간을 나타내기 위한 언어 표현으로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뉜다.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생활 속 발견에서 밑줄 친 부분에는 시간 표현 ‘-었-’, ‘-고 있-’, ‘-겠-’이 사용되어 비가 오는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에 진행되는 일인지, 미래에 일어날 일인지를 표시한다.

### 시제

시제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현재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나중인 미래 시제가 있다. 시제는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 등을 활용하여 실현할 수 있다.

구분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시간 부사
과거 시제	-았-/-었-, -더-	• 동사: -(으)ㄴ, -던	어제, 아까 등
	-았었-/-었었-	• 형용사, 서술격 조사: -던	
현재 시제	• 동사: -는-/-ㄴ-	• 동사: -는	오늘, 지금 등
	• 형용사, 서술격 조사: 없음.	• 형용사, 서술격 조사: -(으)ㄴ	
미래 시제	-겠-, -(으)리-	-(으)ㄹ	내일, 곧 등

어떤 시간 표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담화의 느낌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어말 어미 ‘-았었-/-었었-’을 사용하면 발화시보다 훨씬 전에 발생한 사건이면서 현재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표현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선어말 어미 ‘-더-’의 경우에는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겠-’의 경우에는 화자의 추측이나 의지 등을 드러낼 수 있다.

- 멀고 먼 과거에는 공룡이 살았었다.
- 아침에 까치가 울던니,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 지금쯤 제주도에 도착했겠다.(추측) / 내일까지 일을 꼭 끝내겠습니다.(의지)

### 동작상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다. 진행상을 사용하면 어떤 동작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완료상을 사용하면 어떤 동작이 끝났거나 끝난 뒤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진행상은 ‘-고 있다’, ‘-어(아) 오다’ 등의 표현으로 실현되고, 완료상은 ‘-어(아) 있다’, ‘-어(아) 버리다’ 등의 표현으로 실현된다.

- 날이 밝아 온다.
-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

### 확인

다음 장면에서 시간 표현을 찾고, 그 표현 효과를 설명해 보자.





### 3 피동 표현

**생활 속 발견** 다음 두 문장의 표현 효과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말해 보자.



주어가 제힘으로 움직이는 것을 능동이라 하고,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피동이라 한다. 생활 속 발견에서처럼 동일한 사건이라도 능동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고,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피동 표현은 능동을 나타내는 동사에 피동 접미사 ‘-이-’, ‘-히-’, ‘-리-’, ‘-기-’를 붙이거나, ‘-아지다/~어지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실현하고, 일부 명사 뒤에 접사 ‘-되다’를 결합하여 만들 수 있다.

- 다친 학생이 친구에게 엎혔다.
- 체험 학습이 다음 주로 미루어졌다.
-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강조된다.

피동 표현을 사용하면 동작을 가한 주체보다는 동작을 입은 대상이 강조된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를 밝히고

싶지 않거나 행위의 주체보다는 대상을 강조하고 싶은 경우에 피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확인

다음 문장을 피동문으로 바꾸어 보고,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 보자.

소방관들이 초기에 산불을 잡았다.

핵심 정리

서지정보

저자 은미영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8201-3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5.03.31

가격 1,700원

값 1700 원

55710



9 791137 782013

ISBN 979-11-377-8201-3 (PDF)